

## 간호대학생의 팀워크와 간호전문직관이 임상 실습 적응에 미치는 영향

정종희<sup>1</sup>, 홍소형<sup>2\*</sup>, 오숙희<sup>1</sup>, 송명희<sup>1</sup>

<sup>1</sup>전북과학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sup>2</sup>동강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The Effects of Teamwork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n Clinical Practicum Adaptation of the Nursing Students

Chong Hee Chung<sup>1</sup>, So Hyoung Hong<sup>2\*</sup>, Suk Hee Oh<sup>1</sup>, Myeoung hi Song<sup>1</sup>

<sup>1</sup>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Jeonbuk Science College

<sup>2</sup>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Dongga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팀워크와 간호전문직관이 임상 실습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다. 2019년 8월 5일부터 8월 30일까지 J 대학교 간호학과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115부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Independent t-test와 One 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임상 실습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팀워크, 임상 실습 시 임시 주거 형태, 임상 실습에 대한 만족도였으며 이들 변수는 전체 변량의 67%의 설명력을 보였고 임상 실습 적응에 가장 큰 영향요인은 팀워크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임상 실습 적응을 위해 팀워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팀워크를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주제어** : 간호대학생, 팀워크, 전문직관, 임상 실습 적응, 영향요인

**Abstract** This study is to Influencing factors of nursing students' teamwork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n clinical practicum adaptation. From August 5, 2019 to August 30, data were collected for students in the 4th grade at J University Nursing Department, and 115 copies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Independent t-test, one 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were performed on the collected data using the SPSS 23.0 program.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factors influencing the adaptation of clinical practice were teamwork, temporary housing type in clinical practice,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These variables showed 67% of the total variance and the most Influencing factors in adaptation to clinical practice was teamwork. appea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eamwork for nursing students to adapt to clinical practice, and to develop and apply a program that can strengthen teamwork.

**Key Words** : Nursing students, Teamwork, Professionalism, Clinical Practicum, Adaptation, Predictor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질병 구조의 변화는 노인 의료비의 직접적인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보건의로 환경 변화로 비용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간호 인력 수요는 더욱 커지고 있다[1]. 교육계에서도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간호학과 신설 및 학생 증원으로 많은 대학에서 간호학과 학생정원이 증가하였다[2]. 양적으로 증가한 간호대학생을 역량 있는 전문직 간호사로 배출하기 위해 간호대학에서는 한국간

\*Corresponding Author : So-Hyoung Hong(hsh7021@naver.com)

Received July 18, 2020

Accepted September 20, 2020

Revised August 19, 2020

Published September 28, 2020

호교육평가원에서 제시한 학습 성과에 근거해 이론교육과 실습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학습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근 간호 교육에서는 문제 중심학습법, 팀 기반학습법, 액션 러닝, 시뮬레이션 수업, 포커스 그룹, 토론 수업 등 다양한 교수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런 교수법은 주로 팀으로 이루어져 팀원들과 지속적인 협업이 중요시된다[3].

팀워크는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 각자가 맡은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서로 상호의존적으로 협동하여 과업을 이루어가는 일련의 행동으로[4], 이는 서로 간에 협력과 배려가 필요하다. 병원에서도 24시간 간호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팀을 구성하여 환자를 관리하는 팀 간호 전달체제로 업무가 이루어진다. 간호사의 경우 팀워크가 높을수록 직무 만족과 조직 몰입도가 높고[5], 환자 안전사고가 감소하였으며[6], 간호대학생들도 팀 학습의 팀 구성에 따라 학습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7].

간호전문직관은 전문직업으로서 간호에 대한 체계화된 견해와 간호사의 간호 활동이나 직분에 대한 총체적인 신념과 관념으로[8], 바람직한 간호전문직관은 간호대상자에게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고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역할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9]. 최근 간호대학생은 자신의 성향이나 적성보다는 취업의 보장, 부모의 권유 등으로 간호학과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다. 그로 인해 학과의 엄격한 교육과정과 과중한 학습량, 임상 실습으로 학교생활과 취업 진로 결정에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10]. 이로 인해 간호전문직관이나 가치관이 확고히 다져지기도 전인 간호학생들에게 간호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되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11] 졸업 후 간호사라는 전문 직업에 만족하지 못하고 부적응으로 인한 어려움을 직면하게 된다[12]. 간호전문직관은 이론교육과 실습 교육을 통해 형성되기 시작하여 다양한 실무를 통해 지속해서 발달하므로[13], 학부 교육에서부터 올바른 간호전문직관 형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간호 교육은 이론교육과 실습 교육을 병행하며 실습 교육은 실제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임상 실습으로 구분되어 실시되고 있다[14]. 임상 실습을 통해 간호대학생은 실무에서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의 다양한 실무능력을 배우고 간호사의 역할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기회가 된다[15]. 반면 실습 시 환자, 의료인

과의 갈등, 전문지식 부족 및 자신감 결여, 단순 간호 실무의 반복, 대인관계에서의 경험 부족[16], 학교에서 배운 이론적 지식과 임상 실습 상황에서의 차이를 확인하게 되면서 당혹감도 경험하게 된다[15]. 이러한 경험이 누적될 경우 전공에 대한 강한 회의감이 들어 간호사를 직업으로 선택하지 않거나 취업을 하더라도 장기간 근무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7]. 임상 실습 적응은 병원이라는 낯선 환경에 자신을 맞추어 가는 것으로[7], 추후 신규 간호사가 되었을 때 임상 적응을 어떻게 해나가는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18].

지금까지 간호대학생의 임상 실습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간호사 이미지, 간호전문직관, 자아존중감, 비판적 사고 성향, 셀프리더십, 대인관계, 의사소통 능력, 문제해결 능력 등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들이 있었다. 팀워크, 간호전문직관, 임상실습 적응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간호전문직관은 간호대학생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형성되고 발전되므로 주목할 만하며[19],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은 임상 실습에 영향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20]. 간호업무는 고유한 특성상 팀워크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직무 만족도를 좌우하는 결정요인이 되었다[21]. 본 연구에서는 많은 임상 실습 교육을 통해 정립된 간호전문직관과 여러 동료 조원들과의 관계에서 경험한 팀워크와 임상 실습 적응을 알아보고자 4학년 1학기 임상 실습을 완료한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팀워크와 간호전문직관을 독립변수로 하여 임상 실습 적응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교과과정에 반영하고 효과적인 실습 전략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팀워크와 간호전문직관이 간호대학생의 임상 실습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이에 따른 임상 실습 적응 정도를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팀워크, 간호전문직관, 임상 실습 적응 정도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팀워크, 간호전문직관, 임상 실습 적응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4) 대상자의 임상 실습 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 2. 연구 방법

###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팀워크, 간호전문직관, 임상 실습 적응 정도를 파악하고 임상 실습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실시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J 대학교 4학년 1학기 임상 실습을 완료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회귀분석을 기준으로 독립변수 두 개로 하였을 때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검정력 .95,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15[22]로 하여 필요한 최소표본 크기는 107명이었다.

### 2.3 연구 도구

#### 2.3.1 팀워크

팀워크는 Chang과 Bordia[23]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정한 집단 환경 설문지(Group Environment Questionnaire, GEQ)를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8개 문항의 Likert형 5점 척도로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팀워크가 좋은 것으로 의미한다. Chang과 Bordia[23]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62$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17$ 이었다.

#### 2.3.2 간호전문직관

간호전문직관은 Yeun 등[8]이 개발한 29문항을 Han 등[24]이 축소한 18문항을 측정도구로 사용하였다. Likert형 5점 척도로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Han 등[24]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94$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59$ 로 나타났다.

#### 2.3.3 임상 실습 적응

임상 실습 적응은 Yi[25]가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고 총 14개 문항의 Likert형 5점 척도로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 실습 적응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Yi[25]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86$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63$ 으로 나타났다.

### 2.4 자료수집 방법 및 윤리적 고려

자료 수집 기간은 2019년 8월 5일부터 8월 30일까지이며 연구자는 대상자에게 연구 참여를 거부할 권리와 수집된 모든 자료의 익명성 및 비밀보장에 대한 정보,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제공한 후 설문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117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설문제 성실하게 답변하지 않은 2부를 제외하고 최종 115부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 2.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변수에 대한 기술적 통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였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 실습 적응의 차이 검증은 Independent t-test와 One way ANOVA를 적용하였다. 팀워크, 간호전문직관, 임상 실습 적응과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으며, 임상 실습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Multiple regression 분석을 하였다.

## 3. 연구 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내용은 다음 Table 1과 같다. 115명 중 여학생이 85명(73.9%)이며 20대가 102명(88.7%)이었다. 성격은 '외향적' 25명(21.7%), '내향적' 25명(21.7%), '혼합적' 65명(56.5%)으로 혼합적이 가장 많았다. 건강 상태는 '좋음' 87명(75.7%), '보통' 24명(20.9%), '나쁨' 4명(3.5%)으로 나타났다. 임상 실습 시 거주 형태는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이 55명(47.8%)으로 많았고 학과 만족도는 '좋음' 77명(67.0%), '보통' 33명(28.7%), '나쁨' 5명(4.3%) 순으로 나타났다. 임상 실습 지식 준비도는 '보통' 62명(53.9%), '좋음' 43명(37.4%), '나쁨' 10명(8.7%)이었고 임상 실습 만족도는 '좋음' 67명(58.3%), '보통' 37명(32.2%), '나쁨' 11명(9.6%)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15)**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Gender	Male	30(26.1)
	Female	85(73.9)
Age	20 ~ 29	102(88.7)
	≥30	13(11.3)
Personality	Extrovert	25(21.7)
	Introspective	25(21.7)
	Mixed	66(56.5)
Health status	Good	87(75.7)
	Moderate	24(20.9)
	Bad	4(3.5)
Type of dwelling	Commute from home	27(23.5)
	Temporary residence	25(21.7)
	Dormitory	55(47.8)
	Friend house and others	8(7.0)
Satisfaction with the nursing major	Good	77(67.0)
	Moderate	33(28.7)
	Bad	5(4.3)
Preparatory knowledge for clinical practicum	Good	43(37.4)
	Moderate	62(53.9)
	Bad	10(8.7)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um	Good	67(58.3)
	Moderate	37(32.2)
	Bad	11(9.6)

**3.2 대상자의 팀워크, 간호전문직관, 임상 실습 적응 정도**

본 연구 대상자의 팀워크는 5점 만점에 평균 3.69점으로 나타났고, 간호전문직관은 평균 3.74점, 임상 실습 적응은 평균 4.06점이었다. 다음 Table 2와 같다.

**Table 2. The Level of Teamwork, Nursing professionalism, Clinical Practicum Adaptation (N=115)**

Variables	Min-Max	Mean±SD
Teamwork	1-5	3.69±0.93
Nursing professionalism	1-5	3.74±1.09
Clinical practicum adaptation	1-5	4.06±0.51

**3.3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임상 실습 적응의 차이**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임상 실습 적응은 임상 실습 시 거주 형태( $F=3.92, p=.011$ ), 임상 실습 지식 준비도( $F=5.52, p=.005$ ), 임상 실습 만족도( $F=4.49, p=.013$ )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임상 실습 준비도가 ' 좋음' 경우는 '보통'이나 '나쁨' 경우보다 임상 실습 적응이 높았고 임상 실습 만족도가 ' 좋음' 경우는 '보통'과 '나쁨' 경우보다 임상 실습 적응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 Table 3과 같다.

**Table 3. Difference of Clinical Practicum Adaptation (N=115)**

Characteristics	Categories	Mean±SD	t/F (p) Scheffé
Gender	Male	3.73±0.99	0.23 (.288)
	Female	3.68±0.91	
Age	20 ~ 29	3.69±0.98	0.09 (.926)
	≥30	3.68±0.38	
Personality	Extrovert	3.99±0.83	2.03 (.136)
	Introspective	3.47±0.82	
	Mixed	3.67±0.99	
Health status	Good	3.68±0.96	0.05 (.948)
	Moderate	3.73±0.81	
	Bad	3.80±1.09	
Type of dwelling	Commute from home	3.40±1.02	3.92' (.011)
	Temporary residence	3.40±1.03	
	Dormitory	3.99±0.63	
	Friend house and others	3.60±1.41	
Satisfaction with the nursing major	Good	3.69±0.93	2.92 (.058)
	Moderate	3.38±0.90	
	Bad	3.66±0.93	
Preparatory knowledge for clinical practicum	Good <sup>a</sup>	4.05±0.86	5.52** (.005) a>b,c
	Moderate <sup>b</sup>	3.47±0.91	
	Bad <sup>c</sup>	3.54±0.90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um	Good <sup>a</sup>	3.69±0.93	4.49* (.013) a>b,c
	Moderate <sup>b</sup>	3.35±0.90	
	Bad <sup>c</sup>	3.60±0.58	

\*p<0.05, \*\*p<0.01

**3.4 대상자의 팀워크, 간호전문직관, 임상 실습 적응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 대상자의 팀워크, 간호전문직관, 임상 실습 적응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Table 4와 같다. 임상 실습 적응과 팀워크( $r=.78, p=.000$ )는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임상 실습 적응과 간호전문직관은( $r=.23, p=.012$ )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Table 4. Correlations with Clinical Practicum Adaptation, Teamwork, Nursing professionalism (N=115)**

	Clinical practicum adaptation	Teamwork	Nursing professionalism
r (p)			
Clinical practicum adaptation	1		
Teamwork	.78** (.000)	1	
Nursing professionalism	.23* (.012)	.17 (.071)	1

\*p<0.05, \*\*p<0.001

### 3.5 대상자의 임상 실습 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

간호대학생의 임상 실습 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다음 Table 5와 같다. 본 연구에서 임상 실습 적응과 상관관계가 있는 팀워크, 간호전문직관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검증된 임상 실습 시 임시 주거 형태, 임상실습에 대한 사전지식 준비도, 임상 실습에 대한 만족도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연속형 변수가 아닌 임상 실습 시 임시 주거 형태, 임상 실습에 대한 사전지식 준비도, 임상 실습에 대한 만족도를 가변수로 처리하였다. 임상 실습 시 임시 주거 형태에서 '친구 집과 기타', 임상 실습에 대한 사전지식 준비도에서 ' 좋음', 임상 실습에 대한 만족도에서 ' 좋음'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를 기준으로 하였다. 그 결과 4개 변수가 관련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67%의 설명력을 보였다. 임상실습 적응에 가장 큰 영향요인은 팀워크로 나타났다.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f Clinical Practicum Adaptation (N=115)**

Variables	B	S.E	$\beta$	t	p
Constant	1.50	0.56		2.70	.008
Teamwork	0.63	0.05	.75	12.10	.000**
Nursing professionalism	0.10	0.11	.06	0.88	.383
Type of dwelling <sup>†</sup>					
Commute from home	-0.59	0.23	-.27	-2.54	.013*
Temporary residence	-0.56	0.23	-.25	-2.40	.018*
Dormitory	-0.40	0.22	-.22	-1.79	.077
Preparatory knowledge for clinical practicum <sup>†</sup>					
Bad	-0.08	0.21	-.03	-0.40	.691
Moderate	-0.08	0.12	-.04	-0.61	.545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um <sup>†</sup>					
Bad	0.10	0.19	.03	0.52	.605
Moderate	-0.31	0.12	-.16	-2.50	.014*
R <sup>2</sup> = .670, Adj R <sup>2</sup> = .642 F=23.68, p=000					

† Dummy variables : Type of dwelling(Friend house and others=0, Commute from home=1, Temporary residence=1, Dormitory=1), Preparatory knowledge for clinical practicum (Good=0, Bad=1, Moderate=1),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um (Good=0, Bad=1, Moderate=1)

\*p<0.05, \*\*p<0.001

## 4. 논의

본 연구는 J 대학교 간호학과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팀워크, 간호전문직관, 임상 실습 적응 정도를 파악하고 임상 실습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간호대학생들이 임상 실습에 잘 적응하고 임상 실습 교육의 질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 대상자의 팀워크는 5점 만점에 평균 3.69점으로 선행연구에서의 팀워크 3.52점[26]과 유사한 결과이다. 팀워크는 학습 행동, 성과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실습 시 실습 구성원의 응집력이 좋을수록 임상 수행 능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7]. 환자 간호는 혼자 일하는 업무가 아니며 팀 간호와 3교대 근무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팀과 함께 최대한의 성과를 내는 작업을 통해 협력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간호전문직관은 5점 만점에 평균 3.74점으로 동일한 연구 도구를 사용한 3.74점[28]과 동일한 결과이다. 이는 임상 실습 동안 전문화된 간호를 관찰하고 이에 대한 자긍심을 느꼈다는[29]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 더불어 간호대학생들이 수준 높은 대학교육과 다양한 임상 상황을 접하게 되는 실습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한 것으로 사료된다. 직업에 대한 정체성이 확고하게 형성되면 간호사의 역할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이 강화되므로 확고한 전문직관 확립은 매우 중요하다[30]. 간호대학생의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은 대학에서 교육을 받는 동안 형성되고 성숙하며 체계적인 간호교육과 지속적인 자기개발과 직업 준비를 위한 동기로 이루어진다[31]. 이러한 연구 결과를 볼 때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함양에 있어서 대학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임상 실습 적응은 5점 만점에 평균 4.06점으로 3.21점[18], 3.21점[32]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대상자의 개인적인 판단이나 실습 장소, 실습 학년 등의 차이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로 사료되며 추후 반복 연구를 통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임상 실습 적응은 임상 실습 현장의 새로운 임상 문화에 적응하고, 실습 활동에 능동적인 자세로 임함으로써 실습생에게 적합한 태도와 행동을 갖게 하는 것으로 간호학생들이 임상 실습에서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교육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전문직화에 기여할 것이다[26].

특히 임상 실습 기관과 교육기관과는 긴밀한 협의와 유대관계를 통해 간호대학생들이 임상 실습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지 체계조성과 교육적인 분위기 조성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 대상자의 팀워크, 간호전문직관, 임상 실습 적응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임상 실습 적응과 팀워크는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팀워크는 21세기 인재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으로 팀 구성원 간의 협력적 관계, 협동 학습 등을 통해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자의 역할에 책임을 지고 협력하여 행동하는 역량이다[33,34]. 팀워크가 강할수록 구성원들의 전반적인 적응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35], 실습 동료를 실습에서 가장 의지하는 존재로 들고 있으며[36], 실습 동료와의 관계가 소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볼 때[37] 팀워크와 임상 실습 적응과는 상관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임상 실습 적응과 간호전문직관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Han 등[24]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임상 실습 적응과 관련이 있는 전문직관 향상을 위해서는 대학과 임상현장의 교육적 분위기 조성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관리, 문제해결, 좌절감 극복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팀워크, 임상 실습 시 임시 주거 형태, 임상 실습에 대한 사전지식 준비도, 임상 실습에 대한 만족도가 임상 실습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며 이들 변수는 전체 변량의 67%의 설명력을 보였다. 이 중 임상 실습 적응에 가장 큰 영향요인은 팀워크로 나타났다. 임상 실습 시 임시 주거 형태는 실습지 근처 친구 집 등 기타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이 임상 실습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이는 낯선 환경에서 실습하면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친구들의 지지와 격려가 임상실습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38]. 다음으로 임상 실습에 대한 사전지식 준비도가 임상 실습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는데 이는 임상 실습에 대한 이론적 준비가 잘 되면 임상 실습 적응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임상 실습 준비도를 사전지식 정도와 핵심숙기 자가 평가로 측정한 선행연구[18]에서도 임상 실습 적응에 임상 실습 준비도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 임상 실습에 대한 사전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지면 스스로 자신감을 느껴 실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26]. 따라서 적극적인 실습태

도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한 임상 실습 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임상 실습 적응에 가장 큰 영향요인은 팀워크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팀워크를 연구한 논문이 많지 않아 임상 실습에 있어 팀워크의 효과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팀 활동 시에 공동의 관심사를 가진 타인과 어울려 활동해 나가는 것은 팀원 간의 친화력 형성, 배려, 협조 등을 훈련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게[39] 되어 임상 실습 적응에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팀워크가 효과적으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실습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목표를 공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21]. 따라서 임상실습 시 실습 조의 원활한 팀워크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수자 및 현장 지도자의 협업과 적극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팀워크와 간호전문직관이 임상 실습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파악하여 임상 실습에 잘 적응하고, 임상 실습 교육의 질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J 대학교 간호학과 4학년 1학기 임상 실습을 완료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변인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서술적 조사연구로 시행되었다.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임상 실습 교육의 질과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율적인 환경에서 간호전문직관을 가지고 직접 간호 수행의 기회가 많으며 다양한 프로그램 경험 속에서 팀워크가 다져진다면 임상 실습을 잘 적응하는 역량 있는 간호사로 성장하리라 사료된다. 더불어 실습지도에 있어서 현장 지도자와 실습 담당 교수 간에 면밀한 협의를 통해 더욱 심도 있는 실습 교육으로 학생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며, 전문직관 형성뿐만 아니라 팀워크 향상을 위한 산학협력 체계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동 운영을 제안한다.

## REFERENCES

- [1] J. h. Kim. (2015). A Reasonable Nursing Resources Reorganization Plan through Enactment of Nurse Act. *Ilkam Law Review*, 32(0), 215-261.
- [2]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2013). *Specify the colleges four-year*

- term of study screening. retrieved March, 15.
- [3] C. H. Chung, S. H. Oh & S. H. Hong. (2020). Nursing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and Needs of Capstone Design Classes. *Counseling Psychology Education Welfare*, 7(1), 187-198. DOI : 10.20496/cpew.2020.7.1.187
- [4] W. J. Yun. (2007). *Development of Scale for Individual's Teamwork Skill and Study for Valid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 [5] M. R. Cho. (2012). *Relationship of Nurses' Teamwork to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t Hospital*.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Busan.
- [6] M. M. Park & S. H. Kim. (2018). The effectiveness of operating room nurse's patient safety competency perception of teamwork on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6), 271-281. DOI : 10.14400/JDC.2018.16.6.271
- [7] I. A. Kang & E. S. Jung. (2010). A Qualitative Analysis on the Differences between The Student-Selected Teams and The Learning Style-based Teams in terms of Their Satisfactory Levels on the Learning Activitie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22(3), 67-95. DOI : 10.17927/tkjems.2010.22.3.67
- [8] E. J. Yeun, Y. M. Kwon & O. H. Ahn. (2005). Development of a Nursing Professional Values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5(6), 1091-1110. DOI : 10.4040/jkan. 2005.35.6.1091
- [9] T. H. Cook, M. J. Gilmer. & C. J. Bess, (2003). Beginning students' definitions of nursing: An inductive framework of professional identity.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42(7), 311-317.
- [10] E. H. Kim. (2016). Relationships of Nursing Professionalism, Self-Leadership and Empowerment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clinical health science*, 4(1), 532-541. DOI : 10.15205/kschs. 2016.4.1.532
- [11] M. Y. Park & S. Y. Kim. (2000). A qualitative study of nursing students' first clinical experience.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6(1), 23-35.
- [12] H. S. Park, M. S. Lee, J. M. Yun, S. N. Lee & S. R. Lee. (2018).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Decision Level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43(1), 35-45.
- [13] Y. S. Ham & H. S. Kim. (2012). Comparison of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Anticipating Graduation According to Nursing Educational System.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19(3), 363-373. DOI : 10.7739/jkafn.2012.19.3.363
- [14] M. Y. Jho. (2010). An Analysis of Research on Nursing Practice Education in Korea.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6(2), 239-248. DOI : 10.5977/JKASNE.2010.16.2.239
- [15] I. Y. Cho. (2015). The relationship of communication skill, communication self-efficacy and communication related educational need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4), 2593-2601. DOI : 10.5762/KAIS.2015.16.4.2593
- [16] S. J. Park & B. J. Park. (2013). Relationship of clinical practice stress to clinical competence among one colleg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tress Medicine*, 21(4), 313-322.
- [17] J. Curtis, I. Bowen & A. Reid. (2016). You have no credibility: Nursing students' experiences of horizontal violence. *Nurse Education in Practice*, 7(3), 156-163. DOI : 10.1016/j.nepr.2006.06.002
- [18] S. Y. Kim & Y. S. Shin. (2018). Factors Influencing Adaptation on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9(9), 234-242. DOI : 10.5762/KAIS.2018.19.9.234
- [19] K. M. Lim & E. J. Jo. (2016). Influence of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nd Image of nurses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4), 556-566. DOI : 10.5762/KAIS.2016.17.4.556
- [20] S. H. Kim, J. H. Lee & M. R. Jang. (2019). Factors Affecting Clinical Practicum Stress of Nursing Students: Using the Lazarus and Folkman's Stress-Coping Model.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9(4), 437-448. DOI : 10.4040/jkan.2019.49.4.437
- [21] S. Y. Kang, H. K. Kwon & M. R. Cho. (2014). Effects of Nurses' Teamwork on Job Satisfaction at Hospital: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 14(12), 881-894.  
DOI : 10.5392/JKCA.2014.14.12.881
- [22] Y. S. Yang, S. H. Hong & J. L. Ryu. (2020), Effects of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Nunchi on Interpersonal Harmon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10(7), 75-83.  
DOI : /10.22156/CS4SMB.2020.10.07.075
- [23] A. Chang & P. A. Bordia. (2001).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the group cohesion-group performance relationship. *Small Group Research*, 32(4), 379-405.  
DOI : 10.1177/104649640103200401
- [24] S. S. Han, M. H. Kim & E. K. Yun. (2008).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4(1), 73-79.  
DOI : 10.5977/jkasne.2008.14.1.073
- [25] Y. J. Yi. (2007).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the e-learning orientation program for nursing student's adapting to clinical practicum.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19(4), 593-602.
- [26] S. Y. Kim. (2019).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of Professional Socialization in Nursing Students Experiencing Clinical Practice*[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Seoul.
- [27] S. A. An, S. Y. Baek & E. Y. Jung. (2018). A Study on the Team Sharing Spirit, Team Effectiveness, Team Cohesion, Team Reliability, and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21, 9(4), 751-766.  
DOI : 10.22143/hss21.9.4.53
- [28] C. H. Chung & J. O. Ko. (2018). The Effects of gratitude disposition, self-esteem, and life orientation of nursing students on nursing professionalism.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8(19), 539-558.  
DOI : 10.22251/jlcci.2018.18.19.539
- [29] Y. J. Son, H. S. Song, M. H. Won & S. H. Lim. (2017). Clinical experiences of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in adult intensive care unit using content analysi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7(16), 353-370.  
DOI : 10.22251/jlcci.2017.17.16.353
- [30] E. H. Park & R. H. Hang. (2017). Change in the Nursing Professionalism, Role Conflict and Job Satisfaction of the Nursing Students before and after their first Clinical Experienc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1), 593-601.  
DOI : 10.14400/JDC.2017.15.1.593
- [31] Y. I. Han. (2016). Relationship between core competencies, nursing professionalism and employment strategies in nursing studen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3), 144-152.  
DOI : 10.5762/KAIS.2016.17.3.144
- [32] S. H. Lee. (2019).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Ego-Resilience on Clinical Practice Adaptation of th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20(12), 131-138.
- [33] S. G. Legat. (2007). Effective healthcare teams require effective team members: defining teamwork competencies. *BMC Health Services Research*, 7(1), 17.  
DOI : 10.1186/1472-6963-7-17
- [34] R. L. Hughes & S. K. Jones. (2011). Developing and assessing college student teamwork skills. *New Directions for Institutional Research*, 149, 53-64.  
DOI : 10.1002/ir.380
- [35] I. D. Yalom & M. Leszcz. (2005). *Theory and Practice of Group Psychotherapy*: Basic Books.
- [36] J. H. Yang. (2012). Korean nursing students' experiences of their first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and Practice*, 3(3), 128.  
DOI : 10.5430/jnep.v3n3p128
- [37] H. H. Cho & J. M. Kang. (2017). Factors influencing clinical practice burnout in student nurses.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23(2), 19-206.  
DOI : 10.4094/chnr.2017.23.2.199.
- [38] C. E. Houghton. (2014). Newcomer adaptation': a lens through which to understand how nursing students fit in with the real world of practice. *Journal of Clinical Nursing*, 23(15), 2367-2375.  
DOI: 10.11/jocn.12451
- [39] K. Casey, R. Fink, C. Jaynes, L. Campbel, P. Cok & V. Wilson. (2011). Readiness for practice: the senior practicum experience.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50(1), 646-652.  
DOI: 10.3928/01484834-2010817-03



## 정 종 희(Chong-Hee Chung)

[정회원]



- 2009년 2월 : 전남대학교 보건학협동과정(보건학석사)
- 2015년 8월 : 조선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5년 3월 ~ 현재: 전북과학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다문화간호, 기초과학, 질적연구
- E-Mail : nkoper@hanmail.net

## 홍 소 형(So-Hyoung Hong)

[정회원]



- 2015년 2월 : 우석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8년 2월 : 동신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20년 3월 ~ 현재 : 동강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아동간호, 성인간호, 보완대체간호
- E-Mail : hsh-so@hanmail.net

## 오 속 희(Suk-Hee Oh)

[정회원]



- 2004년 2월 : 조선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 석사)
- 2008년 2월 : 전남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 박사)
- 2011년 3월 ~ 현재 : 전북과학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조직개발 및 변화, 성과관리, 간호역량
- E-Mail : sukh129@jbsc.ac.kr

## 송 명 희(Myeoung-hi Song)

[정회원]



- 2009년 8월 : 전북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경영학석사)
- 2012년 2월 :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학과(보건학박사)
- 2017년 3월 ~ 현재 : 전북과학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지역사회보건 및 간호, 보건교육, 건강증진, 역학
- E-Mail : smh5515@jbsc.ac.kr